

풍성한 참맛 참빛의 잔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웰빙 축제

올해 제23회를 맞은 고창해풍고추축제가 '청정 고창 해풍고추, 그 참맛과 참빛 체험!'이라는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고창군 해리면 복지회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고창해풍고추축제는 청정한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랍사르 습지로 지정된 청정 고창갯벌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고 황토에서 자란 고창해풍고추를 소재로 해풍고추 어울림마당, 짝꿍매, 직거래장터 전시판매, 관광객 체험행사와 다양한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해 매년 고추농가와 소비자, 관광객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지역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상설행사로 해풍고추 품평회, 해풍고추를 넣은 사랑의 김치 담그기, 방문객들이 직접 만들어 맛보는 고추장 떡볶이 만들기, 고추장 비빔밥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해풍고추를 직접 보고 맛보는 다양

한 먹거리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고추꼭지 빨리 따기, 고추 무게 맞추기, 해풍고추컬링, 열쇠고리 만들기, 건강기원 금줄 만들기 등 해풍고추를 활용한 다양한 어울림 마당이 마련돼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품평회 · 사랑의 김치 담그기
떡볶이 만들기 등 체험 '다채'
가수왕 선발대회 등 볼거리도

이날 오후 7시부터는 WBS원음방송 '조은형의 가요세상'이 특집공개방송으로 진행되어 남진, 문연주, 소명 등 유명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밖에도 축제기간 동안 가수왕 선발대회, 명품 품비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돼 신명나는 축제로 꾸며진다.

▲고창의 대표 농 · 특산물 고추

고창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고추는 전국에서 으뜸으로 손꼽힌다. 해풍고추는 청정고창 해안일대에서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갯벌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병해충에 강하고 표피가 두꺼우며 특유의 매콤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김장김치에 사용하는 최고의 고추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해풍고추축제에서는 고창농민들이 여름 내내 땀 흘려 기른 좋은 품질의 고추를 행사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고추직거래장터를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연장하여 열 계획이다.

고창군은 고추축제를 통해 고창 고추재배 농가의 농가 소득향상과 고창해풍고추의 브랜드와워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축제 참가자와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성한 사람과 자연이 아름다운 '사계절 관광의 도시 고창군'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추의 효능

고추는 호흡기 계통 질병의 회복을 빠르게 하며, 피부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약리 작용을 지니고 있다. 발한과 식욕촉진, 건위제, 회충과 요충의 구충제로 쓰여 왔다.

특히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은 발암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항암제로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추의 매운맛은 다이어트와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정읍의 자랑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최소한의 건축양식,
검소와 청빈의 선비정신이 살아 있는
무성서원!

최치원의 생사당으로 시작해
인격의 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학문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온 천년의 보물!

이제,
정읍의 자랑 무성서원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으로 거듭납니다.

· 국가사적 제166호
· 소재지 :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무성리 500)